



화순군, '명품교육 실현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62억여원 교육예산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화순군이 올해부터 '명품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교육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화순군 교육경비예산(이하 교육예산)은 전라남도 군 단위 지자체 중 제일 많은 62억 6,200만원으로 5개 분야 46개 사업을 화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지원한다.

화순군은 광주·전남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한 상태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군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진로박람

회를 11월 경에 개최해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화순진로직업체험센터와 학교 현장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인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자를 선발(20명 내외)해 해외교육봉사 또는 탐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자학당 운영지원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사업성과 관리를 통한 피드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2018년 교육예산은 62억 6,200만원으로, 2016년 40억 2,900만원에 비해 22억 3,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했다.

군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 육성을 목표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인성교육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독서캠프 및 독서토론 열차 운영 지원 등 인성함양 분야 8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지원한다.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화순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확대, 중·고교 진로진학직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진로박람회 개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등 진로·진학·직업 교육 지원 분야 7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실력향상 분야는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습코칭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외국인 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영어경진대회 개최, 공자학당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억 8,9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 고교 수업료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통학권의 지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 학교부적응학생 치료 지원 등 균등교육기회 제공 분야 11개 사업에 22억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교육예산이 교육현장의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도내 지자체 최초 중국 어학연수 보낸다

학업우수 중학생 13명 선발, 절강과학기술대학교 2주간 연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나주시가 아쉽게 추진해왔던 중국 어학연수 사업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다.

나주시는 학업 우수 및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13명과 인솔자 2명으로 구성된 어학연수단이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2주 일정으로 중국 항주시에 있는 절강과학기술대학에서 어학 및 문화강좌, 문화체험활동 등의 연

수 활동을 갖게 된다.

특히 중국 현지 연수를 통한 어학 능력 향상 및 문화체험활동을 병행,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세계적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지역 인재 양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이번 연수에 소요되는 수업료, 항공료, 체재비 중 50%를 지원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5명을 대상으로는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마인드 함양은 필수적"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도 미국, 중국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제20회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31일 팡파르

32개팀 참가 내달 11일까지 5개 경기장서 열전 돌입

광양시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12일간 광양공설운동장 등 5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32개 고교 축구의 명문 팀들이 대거 참여해 명실상부한 고교 축구 최강을 가리게 된다.

경기는 오는 31일 10시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예선전 조별 리그를 거쳐 16강전

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장학금이 지급된다.

시에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광양공설운동장 등 5개 경기장에 자원봉사자(기록요원, 음료봉사, 들것, 볼 도우미)를 배치해 경기 진행과 방문객을 안내한다.

또 숙박·음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지도와 경기장 주변 교통주정차량 안내, 청결활동 등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단을 환영하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시청 부서별 지메결연을 통해 팀 환영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대회 홍보와 따뜻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양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이번에 경기가 열리는 공설운동장과 광양축구전용 1·2구장, 마동1·2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 하는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의 개최로 축구 명문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토양우체국 서비스' 시범운영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과학화의 기초가 되는 토양검정 편의를 위해 '토양우체국'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토양검정은 작물과 땅의 특징에

따라 작물 생육에 필요한 시비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승주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순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양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토양검정시료 수거함에 시료를 채취하여 넣으면, 매주 수거하여 정밀분석을 거쳐 시비 처방서를 직접 농가에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토양우체국 서비스는 교통불편, 고령화 등으로 토양검정 애로가 많았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양검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과학농업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추진하여 농업인 편의 증진 및 과학적 영농에 기여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조충훈 순천시시장,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목민상' 수상

희망페스티벌 개최·청춘창고 등 창업 적극 지원

순천시 조충훈 시장이 19일 서울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소상공인연합회(KFME)가 선정하는 목민상을 수상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목민상은 올해 신설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및 기여도 등을 평가·선정하며, 순천시 조충훈 시장과 조윤길 인천 응진군수가 최종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경제불황과 대규모 점포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희망페스티벌 개최, 청춘창고와 아랫집아시장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 살아야 우리나라 기초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부터 순천시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수축진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부활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